

영혼을 살려내는 아들의 음성

본문: 요한복음 5:25-29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믿는 자에게는 계속 믿음을 유지 하게 하고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든다. 어떻게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깊게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고 강하게 하고 깊게 만든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듣고 만졌다(요한일서 1:1). 그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 은혜의 충만함은 그에게로 흘러들어가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요한을 인도 하사(16:13)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보고 들은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묘사했다. 우리가 그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더욱 깊게 만든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고 맞본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의 눈을 떠서 그를 보고 맞 보자.

25-29에서 예수님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몇 가지를 관찰해 볼 수 있다.

1.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신다.

25절을 읽어 보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나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 난다. 현재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현재 죽은 자들이 살아 난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 난다. 오늘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28, 29절을 읽어 보면 다른 의미가 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날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난다. 이 때 살아 난 것은 육체적인 부활이다. 이 때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일어난다. 신자와 불신자가 다 부활한다. 단 12:2을 읽어 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행 24:15에서 바울이 재판관을 받고 있을 때 벨릭스 앞에서 말한 것이다. “의인과 악인이 부

활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다.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살아 왔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모택동도, 이승만도 김일성도 박정희도 최 은희도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들을 다 살려 그의 심판대 앞에 두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2.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에게서 나온다.

26절말씀을 읽어보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은 아버지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똑 같은 말을 사용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영원부터)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리신다.

3. 예수님은 인자로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

27절을 읽어 보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는 다니엘 7:13로부터 매우 높고 신적인 타이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그것은 뛰어난 신적인 존재외에 여기에서 그의 다른 자격에 강조점이 있다고 본다. - 우주의 심판자로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살려서 심판을 받게 하는 분은 인자요, 즉 연약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세상을 심판하실 자가 죽음 당한 어린양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유다의 사자는 첫째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어린양은 먼저 고난 받은 사람의 아들이어야만 한다.

4.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은 우리의 행위, 선이나 악이나에 따른다.

28,29절을 읽어 보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 받는다고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 편이 된다고나 우리의 선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선한 행위를 낳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

리스도와 연합 된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선행은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자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되었다는 것의 증거요 확인이요, 입증이 된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썩은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 하여 그를 -우리와 같이 인간적으로 시험을 받았던 그를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우리의 삶을 볼 것이다. 완전한 삶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 때문에-그를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고, 그를 영접하고 그로부터 마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그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이와 같은 영광의 빛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제 그를 영접 하자. 그를 의지하자. 그를 귀히 여기자. 참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목상하고 또 목상해야 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목상하고 목상 할 때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가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칠 것이다.